

- **주요 뉴스:** 미국 PCE 물가상승률 예상치 부합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 증가
 - 스페인, 무디스(Baa1 → A3) 및 피치(A- → A) 신용등급 상향
 - 보먼 연준 부의장, 고용시장 취약성에 연준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강조
 - 유로존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향후 1년) 전월 2.6%에서 2.8%로 상승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PCE물가 예상치 부합, 개인소비지출 증가세가 영향
 - 주가 상승[+0.6%], 달러화 약세[-0.4%],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개인소비지출 증가 및 금리인하 기대에 힘입어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의약품 관세 불구 미국 경기지표 영향 등으로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물가상승률 예상 부합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약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2% 상승
 - **금리:** 미국 국채금리는 혼조, 금리인하에 민감한 단기물은 하락, 장기물은 상승
독일 국채금리는 미국 경기지표 영향 등으로 소폭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07.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09.8원, -0.19% 하락). 한국 CDS 하락

		9/26일	9/25일	전일대비			9/26일	9/2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643.7	6,604.7	0.59%	국채 금리 10y	미국	4.18	4.17	+1bp
	유럽	554.52	550.22	0.78%		독일	2.75	2.77	-2bp
	중국	3828.11	3,853.3	-0.65%		영국	4.75	4.76	-1bp
	일본	45,355	45,755	-0.87%	CDS 5y	한국	24	25	-1bp
	한국	3,386.1	3,471.1	-2.45%		중국	37	38	-1bp
	달러지수	98.18	98.55	-0.38%	위험 지표	EMBI+	347	343	+4bp
환율	유로화	1.1703	1.1666	+0.32%		VIX	15.29	16.74	-8.66%
	엔화	149.49	149.80	+0.21%		WTI유	65.72	64.98	+1.14%
	위안화	7.1345	7.1339	-0.01%	원자재	구리	471.85	470.45	+0.30%
	원화	1,412.4	1,400.6	-0.84%		금	3,760.0	3,749.4	+0.2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PCE 물가상승률 예상치 부합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 증가. 소비심리는 둔화

-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7%(1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전월대비로는 0.3% 상승. 근원물가 상승률도 전년동월비 2.9%,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하며 예상치에 부합
- 8월 실질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전월비 0.4%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다만, 반면,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 및 고용 불안 등으로 전월 58.2에서 55.1로 감소. 소비심리 악화는 연령, 소득, 학력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 향후 지출 감소 가능성을 시사
- 일각에서는 고용시장 지표 악화 등을 근거로 개인소비지출이 최근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 다만, 금일 시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재차 가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긍정적 시각이 우세
-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100%)·대형트럭(25%) 등을 대상으로 품목별 관세를 공개. 반도체의 경우 현지 생산량에 상응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며 관세 관련 불확실성 지속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스페인, 무디스(Baa1 → A3) 및 피치(A- → A) 신용등급 상향

- 무디스는 스페인 신용등급을 Baa1에서 A3로 한단계 상향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 노동시장 개선, 은행부문 강화, 민간부채 축소,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스페인의 경제 펀더멘털이 보다 균형잡힌 성장 모델로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
- 피치는 스페인의 '25년 및 '26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2.7%, 2.0%로 상향하고, 잠재성장률도 1.4%에서 2%로 조정

■ 보먼 연준 부의장, 고용시장 취약성에 연준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강조

- 노동시장 악화와 관련해 연준의 대응이 이미 시장 흐름에 뒤처졌을(behind the

curve) 가능성을 지적하며,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경우 더 빠르고 큰 폭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한편, 연준의장 후보인 라이더 블랙록 CIO는 미국 2분기 GDP성장을 확정치가 수정치 대비 상향된 점을 들어 경제가 견조하다고 평가하며, 저소득층에 불균형한 부담을 주는 고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 유로존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향후 1년) 전월 2.6%에서 2.8%로 상승

- 명목소득 증가율(향후 12개월) 전망은 0.9%에서 1.1%로 상향되었으나, 지출증가율은 3.3%로 전월과 동일, 실업률 전망은 10.7%로 상향

■ 원유 시장, OPEC+ 11월 추가 증산 합의 예상

- 블룸버그 설문에 따르면, 사우디와 주요 산유국들은 11월에 하루 일일 13.7만 배럴 수준의 증산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 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매출이 줄더라도, 물량 확대를 통해 이를 만회하고 최근 몇 년간 미국 셰일업체 등 경쟁자에게 내준 시장점유율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해석

■ 덩그라 영란은행 위원, 인플레 완화 전망 속 추가 금리인하 주장

- 영국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며, 인플레이션 급등세는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 이에 물가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

■ 유엔 안보리, 이란 핵합의 불이행 이유로 제재 종료 연장안 부결

- 대이란 제재 부과 종료를 6개월 연장하는 안에 대해 4개국이 찬성, 9개국이 반대표를 행사. 이란이 IAEA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이 사유로 지적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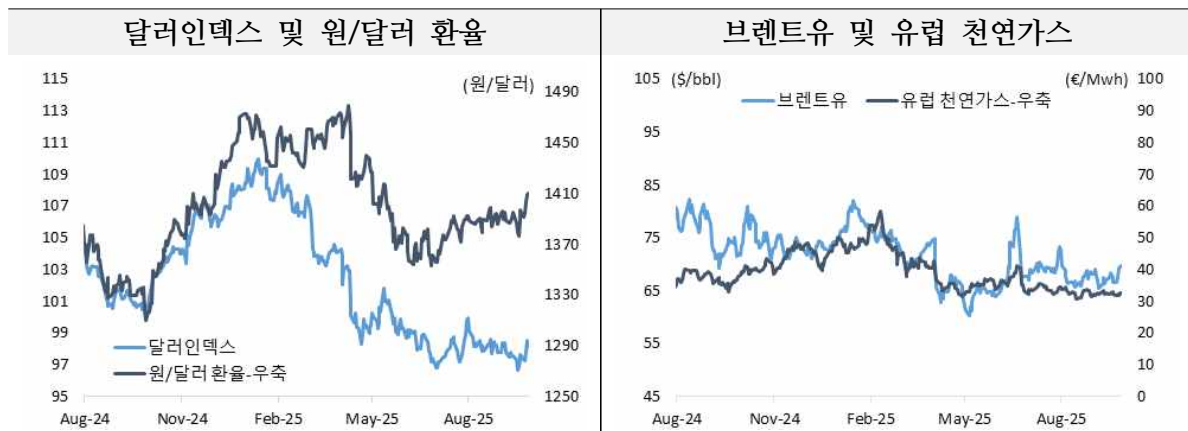
■ 주요 경제 이벤트(9/29~10/3일 현지시각 기준)

- 독일 9월 CPI(30일, 전월 2.2%_{yo}), ECB 라가르드 총재 연설(30일) 등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애틀랜타 보스틱 총재 발언(29일), 8월 구인 건수(30일, 전월 718만건), 9월 ISM 제조업 PMI(10.1일, 예상 49.2)
- 일본 8월 산업생산(29일, 전월 -1.2%), 중국 9월 제조업 PMI(29일, 전월 49.4)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46, E-mail swshin@kcif.or.kr